

우선주에는 배당 우선주, 잔여재산 우선주, 상환우선주, 전환우선주, 상환전환우선주(=전환상환우선주) 등이 있습니다.

종 류	설 명
우선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이익 배당(배당 우선주)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(잔여재산 우선주)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</u></li> </ul>
상환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우선주 중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</u></li> <li>• <u>실무에서 상환주식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우선주의 내용중의 하나, 즉 상환조항 부가되는 방식으로 발행</u></li> </ul>
전환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</u></li> <li>• <u>실무에서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설정</u></li> </ul>
상환전환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우선주, 상환주, 전환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주식</u></li> </ul>

보통주와  
✓

## 2. 우선주 장점

### 2.1. 우선주

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른 방식으로 일정한 이익을 배당받아 투자원금에 대한 금리적 성격이 강하며, 우선주주는 사채권자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. 투자자에게 다양한 내용의 주식을 팔아 회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

### 2.2. 상환주

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회사를 지켜보다가 만약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, 반대로 회사의 전망이 어둡다면 다시 회사한테 되팔 수 있습니다.

### 2.3. 전환주

우선주 1주를 나중에 보통주 1.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①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면 주주는 우선주를 보유하며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, ②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져 배당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한다면 우선주를 전환하여 우선주보다 많은 수의 보통주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.

매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이른바 '상환주식'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다라도, 그에 상응하는 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항소심은 상환권을 행사하면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.

① 상환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을 상환해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, 즉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(상법 제345조 제3항). ② 상환권이 회사 측에 부여되어, 회사가 필요한 때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지요(상법 제345조 제1항). 다만, "상환"은 회사의 "배당가능이익(상법 제462조)"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서,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상환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.

상환주식을 활용할 경우, 회사는 이를 통해 "회사채 발행"과 유사한 형태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, 투자자는 회사가 잘 운영되어서 "배당가능이익"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조기에 상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